

지방대 특화지역 7곳으로 확대 학사·교원·시설규제 완화 박차

교육부,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 특화지역 새롭게 지정
지방대, 최대 6년간 규제완화 수혜
맞춤형 교육·산업 연계 기반 강화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 소재 지방대학은 앞으로 최대 6년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부산·대구·경북·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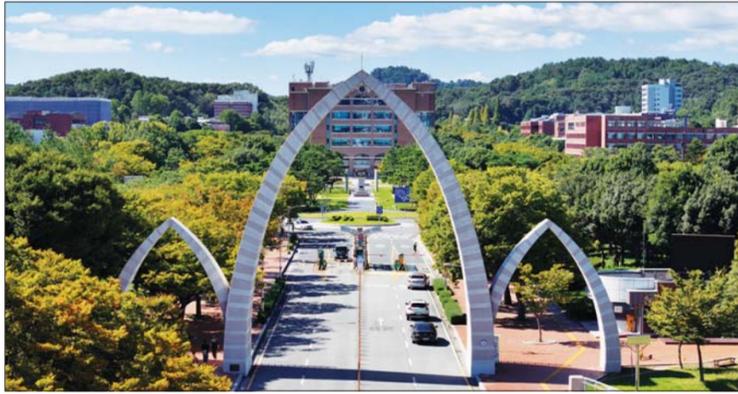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특화지역 총 7개 지역으로... 18건 규제특례 추가 적용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됐다. 이에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규제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사제도의 경우 도입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벌대학인 국립 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전경.

/뉴시스

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기존 졸업학점의 1/4에서 1/2 이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돼 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업이 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 내 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 주요보직에 외부인사 임용 가능

교원인사분야의 경우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산업계 전문가 연구자의 영입을 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임교원은 공개채용 원칙도 완화

되고, 정년기준도 예외로 적용된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되는 등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해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통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 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대학이 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앙대, ROTC 비전설계 토크콘서트 성료

우수 후보생 선발 위한 '소통의 장'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지난 15일 서울캠퍼스 100주년기념관 대신홀에서 '학생군사교육단(ROTC, 이하 학군단) 비전설계 토크콘서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대 111학군단과 중앙대 ROTC 총동문회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ROTC 후보생 양성 과정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을 모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상규 총장, 박광용 교학부총장, 임신재 교무처장, 이장한 학생처장, 권성이 학군단장 등 중앙대 주요 보직자들과 박상근 ROTC 통일정신문화원장을 포함한 동문, 학군단에 관심

있는 중앙대 재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홍보영상 시연 ▲총장축사 ▲학군사관 비전 설명 ▲동문 선배와의 대화 등 순으로 진행됐다.

권성이 학군단장은 중앙대 학군단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에 대해 소개하며, "중앙대 학군단은 체계적인 리더십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인적 역량을 갖춘 장교를 양성해 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우수한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다. 학군단으로서의 경험은 단순한 군복무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동문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학군단 출신 동문 7명이 참여해 실무경험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현진 기자

강동송파초교 체험학습, 퇴직 소방관이 동행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안전한 동행'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은 관내 초등학교의 교외 현장체험학습에 퇴직 소방관 '동행쌤'이 함께하는 '안전한 동행' 사업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서울시지회(회장 장인수)와 협력해 퇴직 소방관인 '동행쌤' 18명을 구성했다. '동행쌤'은 퇴직 소방관으로서 학교 교외 활동 시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봉사자로, 교육지원청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학교에 배치된다. 올해 1학기에는 강동·송파 관내 초등학교 7교(88학급), 2학기에는 초등학교 14교(100학급)를 지원할 예정이다.

'동행쌤'은 교외 현장체험 활동 시 ▲버스 승하차 및 도보 이동 시 학생 인

솔 등 안전 지도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등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안전한 동행'을 지원받았던 거여초 이은혜 교사는 "2학년 학생들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되고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안전조끼, 구급함, 안전 경광봉 등 안전 지도에 필요한 물품을 완벽히 준비하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든든했고,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조현석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최근 현장학습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학교에서 교외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전문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인천서 열린다

인천, 내년 개최지로 최종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현지시간 지난 17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서 '2026년 제24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舊 한상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64개국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 등 약 3,000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해마다 대륙을 돌며 개최된다.

인천시는 이번 유치로 2009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회를 주최하게 됐다. 8년 만에 다시 송도컨벤시아에서 행사를 열게 되며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간 인천시는 비즈니스, 문화, 관광 등 도시의 매력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정성껏 준비했고 송도 국제회의복합지



2026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고이미지.

/인천광역시

구의 우수한 MICE 인프라를 적극 홍보했다. 또 주요 한인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대회는 2026년 4월 또는 10월 중 3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재외동포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며, 주요 행사장과 인근 숙박시설은 이미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

개최 도시는 환영 오·만찬부터 참가자 수송, 물류, 자원봉사자 운영, 행사 홍보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이과 쓸림 꺾였다... "올해 수능 문과가 유리"

3월 학평, 사탐 비율 최고치
종로학원 "이과 쓸림 부담 탕"
상위권 이과 점수 불리 전망

올해 고교 3학년 수험생의 문과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의대 선호로 이과 쓸림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문과생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과 응시생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이과의 상위권 점수 확보가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26일 시행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학 선택과목 중 이과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지난해 46.1%에서 40.5%로 5.6%p 하락했다. 통합 수능이 도입된 이래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 비율은 ▲2022학년도 39.5%, 2023학년도 43.2%, 2024학년도

46.1%, 2025학년도 46.1%로 꾸준히 올랐지만, 올해 하락세로 전환됐다.

반면, 문과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53.9%에서 지난 3월 59.5%로 5.6%p 상승했다.

국어영역에서도 이과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언어와 매체 응시 비율이 지난해 37.4%에서 33.8%로 3.6%p 하락하며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에 응시한 학생 중 54.7%가 과탐(2과목 모두) 응시했다. 반면, 문과 사탐(2과목 모두) 응시생 비율은 33.6%다. 통상 이과 학생이 언어와 매체에 더 많이 응시한다.

탐구영역에서도 사회탐구 응시자가 64.6%로 지난해(55.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24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래 사탐 응시 비율이 최고치를 보였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56.2% ▲2023학년도 54.7% ▲

2024학년도 52.8% ▲2025학년도 55.1% 등 55%내외에서 등락을 보여왔지만, 올해 64.6%로 큰폭 오른 모습이다. 사탐 응시 비율이 늘어난 것은 이과 학생 중 사탐과목을 응시하는 '사탐러'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문과 학생의 증가가 동시에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2022학년도 43.8% ▲2023학년도 45.3% ▲2024학년도 47.2% ▲2025학년도 44.9% 등 43~47% 사이를 오르내리던 과학탐구 응시율은 올해 35.4%로 떨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최근 의대 선호 현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과에 집중돼 있고, 서울권 소재 대학 합격선도 이과가 문과보다 높은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낀 이과 중위권대, 중하위권대 학생들이 문과로 전향하면서 중상위권 대학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